EEZ 위반 중국어선 선장 "봐달라" 23만원 뇌물공여

배타적경제수역(EEZ)법 위반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이 해양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다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전날 오후 6시4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7.6㎞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76t급 유자망 어선 '기황어 6859호' 등 3척을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들은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불법조업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나포 과정에서 중국어선 '기황호 6859호' 선장 유상영(43)씨는 선박을 검문·검색하던 목포해경 '305 경비함'(함장·김문홍 경감)의 윤성일(31)경장과 김호중(24)순경에게 "위반 사실을 묵인해 달라"며 중국돈(인민폐) 2천100위안(한화 23만1천원)을 제공하려다 불법 조업 협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됐다. 뇌물공여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145척을 나포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EEZ(Exclusive Economic Zone)=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의 독점적 권리. 자국 내 EEZ에서는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해수·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및 탐사권,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등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휴대전화 통화내용 암호화

정통부, 12월부터 도·감청 불안 해소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불법 도·감청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통신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올 12월부터 기지국과 휴대전화 간 통화내용을 암호화하기로 했다.

19일 정통부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기지국과 휴대전화 간의 통화내용을 암호화할 수 있도록 암호기술의 하나인 'Private Long Code'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복제전화에 의한 도·감청을 차단할 수 있도록 등록인증서비스를 발신 및 착신까지 확대해 복제전화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복제전화란 정상적인 휴대전화에 내장된 고유번호(ESN)를 복제한 쌍둥이 휴대전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통사의 네트워크 인증 값과 휴대전화에 부여된 인증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통화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한편 미국의 퀄컴은 미국국가안보국(NSA)와 함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비화(秘話) 전화기(QSec 800)를 개발, 지난 2003년부터 미국 주요 행정부와 미군에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자치구 주소 다르면 보육비 지원 못해"

아동 2천여명에 "어린이집 옮겨라"

학부모들 "어떻게 적응하라고" 강력 반발

광주시가 주소지가 다른 자치구의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학기 중에 주소지를 옮기거나, 아동들의 어린이집을 관할 주소지 내로 옮기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아동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 관할 주소지 밖에서 온 '관외아동(管外兒童)'에 대해서는 보육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6월과 9월 370여 곳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른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아동들이 상당수에 달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광주시내 1천93개 어린이집에선 관외아동의 주소지를 관내로 옮기거나 관할 주소지 어린이집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관외아동'이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학기 중에 갑작스럽게 어린이집을 옮기도록 해 환경을 바꾸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다"며 "보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관외아동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규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횡포"라고 항의하고 있다.

윤진희씨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주소는 서구지만 경계선에 있어 집에서 한 블럭 차이에 있는 남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며 "없는 돈으로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억울하다"고 항의했다.

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학기초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보육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만 생각하고 보육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성가족부는 올 초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에서 해당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광주시는 그러나 각 자치구가 보육비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관외 아동의 보육비를 국비와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구 등 광주시내 5개 자치구는 13억여원의 보육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지역 아동의 보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는 4만1천465명의 어린이들이 1천93개소의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이중 73%가 보육비가 지원되는 영세가정 출신이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광주 하우징엑스포 '2006 광주하우징엑스포'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120여 개 업체가 전원주택 및 인테리어 기자재·조경·건설 장비·디지털 홈 분야 등 7천여 점의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中·高 부교재 리베이트 출판사 압수수색

경찰, 업체 대표·영업사원 10여명 소환조사

참고서 등 부교재 선정 대가로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본보 19일자 7면〉를 받고 있는 유명 출판사의 총판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교재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중인 광주 서부경찰은 19일 오전 8시께부터 3시간여 동안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모 출판사 광주총판 사무실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 사무실에서 ▲거래 학교·학원 명부 ▲영업장부 ▲금전출납부 ▲거래 통장 등 사과 상자 2박스 분량의 각종 서류를 압수해 은행 통장 거래 내역 등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이 이날 압수한 장부 중에는 수십만원 단위의 납품 내역과 금액이 빠진 채 '접대'라는 항목이 한 차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날 업체 대표 김모(45)씨를 비롯한 영업사원 13명의 직원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체 대표 김씨는 그러나 "학교에서 교재가 채택할 경우 견본 책자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리베이트를 건넨 적은 결코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부경찰은 광주지역 모 출판사 광주총판이 자사의 교재를 채택하는 명목으로 광주·전남 지역 30여 곳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 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주 주몽 세트장 불

초가 태워 촬영 차질

19일 오전 10시43분께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드라마 '주몽' 보조 촬영장에서 불이 나 초가 1채를 태워 38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곳에서는 나주시 공산면 촬영장을 보조, 오는 22일부터 촬영이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토치(torch) 램프를 이용해 목재 기둥에 무늬를 새겨 넣다가 불이 붙었다"는 현장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스와핑' 거절에 앙심 … 협박 돈뜯어

쌍나팔

○…광주 서부경찰은 19일 '스와핑'(swaping·커플 교환 성관계를 뜻하는 속어)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 돈을 뜯어낸 정모(30·광주시 서구 광천동)씨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2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모(31)씨에게 '2대 1 성관계'를 제의했다가 김씨의 내연녀가 이를 반대하자 "그렇다면 서로 파트너를 바꾸자"고 제안.

○…미혼인 정씨는 자신의 애인을 설득, 지난 15일 광주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파트너를 교환하고 성관계를 맺기로 했으나, 막상 당일 유부남인 김씨가 자신의 내연녀를 데리고 나오지 않자 "본부인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지금까지 2회에 걸쳐 200만원을 뜯어냈다고.

○…경찰에서 정씨는 "총각인 나는 스와핑에 합의, 애인을 데리고 나갔는데 김씨가 자기 내연녀만 얌체처럼 빼돌리자 화가 나서 협박했다"고 진술.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